

베어벡 새해 첫 관문

선수 차출 힘 겨루기

올림픽대표팀 16일 소집...일부 구단 반발 예상

축구 국가대표 및 올림픽대표팀 사령관 팀 베어벡(51) 감독은 고국 네덜란드에서 2007년 첫날을 맞았다.

베어벡 감독은 연말연시 휴가를 마치고 오는 12월에 돌아온다.

2006년 디도일월드컵 축구 직후 한국 축구의 나침반을 밟아들고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높아

진 축구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역부족이었다.

2007년엔 훨씬 힘든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베어벡이 새해에 맞이할 첫 번째 시련은 올림픽대표팀 선수 차출을 둘러싼 프로 구단들과의 힘겨루기가 될 듯 하다.

올림픽대표팀은 늦어도 오는 16일께 소집돼 21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흘 일정으로 열리는 8개국 올림픽 팀 초청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한다.

2월 28일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러야 하는 베어벡 감

독의 입장에선 이번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실전 리허설이라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반면 K-리그 구단들도 할 말이 있다. 언제까지 매년 겨울마다 대표팀에 선수를 빼앗겨 '반쪽 훈련'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 11월 일본 도쿄 원정을 다녀온 올림픽팀 21명 중에는 FC서울 선수 5명, 전남 3명, 부산·울산·대전·인천 소속이 각

2명씩이다. 여기다 도하아시안게임에 다녀온 올림픽팀 연령대 5인방 박주영(서울), 백지훈(수원), 오장은(대구), 정인환(전북), 정성룡(포항)의 차출 문제도 복잡하다.

새해에 베어벡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K-리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올림픽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베어벡은 지난 해 11월 이미 한 바탕 흥역을 경험했다.

11월 15일 아시안컵 예선 이란 테헤란

원정에 김두현, 김용대(이상 성남), 조원희(수원)를 데려갔다 K-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앞둔 성남과 수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늘 유능한 2인자의 자리에 물려온 베어벡은 이참에 대표팀 선장으로서 카리스마를 발휘해 올림픽팀과 프로 구단을 모두 만족시킬만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작년 11월 일본 도쿄 원정을 다녀온 올림픽팀 21명 중에는 FC서울 선수 5명, 전남 3명, 부산·울산·대전·인천 소속이 각

2명씩이다. 여기다 도하아시안게임에 다녀온 올림픽팀 연령대 5인방 박주영(서울), 백지훈(수원), 오장은(대구), 정인환(전북), 정성룡(포항)의 차출 문제도 복잡하다.

새해에 베어벡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K-리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올림픽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베어벡은 지난 해 11월 이미 한 바탕 흥역을 경험했다.

11월 15일 아시안컵 예선 이란 테헤란

PGA 투어 5일부터 '티오프'

10개월간 총 47개 대회

상금 3억 달러 '돈잔치'

올해부터 도입한 '페덱스컵'은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치러지는 36개 대회마다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로 144명을 추려 플레이오프 격인 4개 대회를 치르는 방식이다.

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가 200명 암파이어 100여명 이상의 백만장자를 탄생시킬 전망이고 더구나 새로운 제도 '페덱스컵'의 도입으로 골프체 하나로 1천만달러를 벌어들이는 장면도 보게 된다.

올해 PGA 투어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독주가 여전한 가운데 필 미켈슨, 짐 퓨릭(이상 미국), 아니 엘스(남아공) 등

의 '2인자'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5인의 한인 PGA 투어 멤버=여자골프

에 비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

했던 한국 남자 골프는 2007년에는 사상 최

다 PGA 투어 멤버를 출동시켜 신기원에 도

전한다.

최경주, 나상욱, 위창수, 앤서니 김, 양용은 등 한인 '5인방'이 활약할 2007년 PGA 투어에서 팬들의 소망은 한인 복수 챔피언 탄생과 한인 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이다.

어느덧 관록파로 접어든 최경주는 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 '다결기'에 나설 계획이다.

최경주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집념으로 올해도 변함없는 활약이 예상되지만 2년만 지나면 불혹의 나이에 이르기며 메이저대회 우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다면 아마 마스터스가 될 것'이라고 공언해온 최경주는 상반기부터 마스터스를 겨냥한 '메이저 정복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아직 최경주 밖에 없는 한인 투어 대회 우승자도 올해는 1명쯤 주가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을 부상으로 하비한 나상욱은 2부투어 우승으로 실력을 증명받았고 위창수는 이미 아시아와 유럽 무대에서 PGA 투어 챔피언으로서 손색없다는 판정에 내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지난해 9월 치러진 대표선발전에서 남녀부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던 총 10명의 선수들이 모두 나선다.

이번에 확정된 엔트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안현수와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변천사, '새내기' 김병준이 전종목(500m, 1,000m, 1,500m, 계주)에 출전하는 것이다.

쇼트트랙 대표팀 팀 리더인 채환국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연말 각 대표선수들의 코치들과 출전종목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선수별 '우수 종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천사와 안현수, 김병준을 전종목에 나서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아모로리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에서 3관왕에 올랐던 안현수는 3년 만에 2회 연속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특히 남자 대표팀의 '맏내' 김병준은 자신의 생애 첫 아시안게임에서 '대선배' 안현수와 릴레이를 제외한 3종목에서 금메달을 다를 수 있는 행운을 거두워졌다.

이밖에 남자 대표팀에서는 송경택(24·강릉시청)이 500m와 1,500m, 릴레이 등 3종목에 나서고 김현곤(22·강릉시청)은 1,000m와 릴레이에 출전한다.

또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여자 3관왕에 올랐던 진선연(19·광문고 출업예정)과 '동갑내기' 정은주는 500m를 제외한 나머지 3종목에 나란히 나선다.

김정(22·경희대)은 500m에만 출전하고, 전지수는 500m와 릴레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승진 NBA 하부리그서 뛴다
애너하임 아스날과 1년 계약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농구(NBA)에 진출했던 하승진(21)이 NBA 하부리그인 NBDL에서 뛰게 됐다.

하승진의 에이전트 WMG사의 존 김은 1일(이하 한국시간) "하승진이 NBDL의 애너하임 아스날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입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승진이 뛰게 된 애너하임은 1일 현재 서부지구에서 6승9패로 6개 팀 중 5위에 처져 있는 구단으로 하승진은 5일 아이디어와 경기부터 코트에 나선다.

2004~2005 시즌부터 NBA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뛰었던 하승진은 46경기에서 평균 1.5점, 1.5리바운드의 성적을 남겼고 올 시즌은 앞두고 밀워키 벅스로 트레이드 됐다가 시즌 개막 전에 팀에서 방출됐다.

워드 시즌 975야드 전진

터치다운 6개...정규시즌 마감

미국프로풋볼(NFL)의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975야드 전진으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다.

워드는 새해 첫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플 브라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신시내티의

벵갈스와 정규 시즌 17주차 마지막 경기에서 터치다운 없이 러싱 30야드, 리시빙 51야드 등 81야드를 전진했다.

전날까지 924야드를 전진한 워드는 이날

51야드를 보태 올해 14경기에서 총 975야드를 전진한 것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올해 기록한 터치다운은 모두 6개다. 러싱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30야드를 기록했지만 리시빙 전진과 벙갈 주다.

이로써 워드는 특급 리시버의 판단 장애인 1천야드 고지를 2년 연속 밟지 못했다.

1998년 데뷔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1천야드를 넘어서었던 워드는 2년 연속 975야드에 그쳤다. 올해는 시즌 막판 상대 헬鄯에 부딪혀 왼쪽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는 악재가 겹쳐 목표 달성을 실패했다.

피츠버그는 4쿼터까지 17-17 동점으로 마친 뒤 연장전에서 벤 로슬리버거의 패스를 받은 산토니오 휴즈가 터치다운을 성공시켜 23-17로 승리, 8승8패로 시즌을 끝냈다.

지난 해 슈퍼볼 챔피언 피츠버그는 시즌 초반 2승6패의 열세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아메리칸 콘퍼런스 북부지구 3위에 머물러 지구 우승팀 4팀과 승률이 좋은 나머지 2팀에게 주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쳤다.

대한항공경기연맹은 최근 제6회 장춘 동



한국 쇼트트랙 동계아시안게임 전종목 금 목표

28일부터 중국 장춘서 개막

안현수 2회연속 3관왕 기대

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될 남녀 총 10명의 쇼트트랙 대표팀 명단과 함께 선수별 출전 종목을 확정짓는 가운데 안현수(22·사진 맨앞쪽)와 변천사(20·이상 한국체육), 김병준(19·광문고 출업예정)이 전종목에 나서서 금메달 '싹쓸이'에 도전한다.

대한항공경기연맹은 최근 제6회 장춘 동

보했다.

G 기단교육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착하고, 틈틈하게 잘 자란준 마미들이
엄마에겐 공부 1등보다 빠른 선물입니다.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람으로 미끌어주세요.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 바로 엄마니까요.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기단회원이 되세요. 엄마선생님이 되세요!"

기단회원이 되면 무료로 학원 기관내에서 교육정보와 학급동향, 신체 체계화 및 비체계화 가족분야 내용 등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드리는 편안한 주제자 - 바로 기단회입니다.

▶ 기단학습자는 전국 유망서점과 칼디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문의: (02)536-1007

gitan.co.kr